

# 도포 형태의 전래와 발전 양상에 관한 실증적 고찰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 은 주

## 目 次

- |                                 |                                    |
|---------------------------------|------------------------------------|
| I. 머리말                          | 3. 도포 형태의 발전 단계에 대한 분석             |
| II. 도포의 전래                      | 4. 도포 뒷길 안자락의 유형 및<br>다른 부위와의 상관관계 |
| III. 도포 형태의 발전 양상에 관한<br>실증적 분석 | IV. 맺음말                            |
| 1. 직령과 도포의 관계                   | ABSTRACT                           |
| 2. 도포의 부분 명칭에 대한 검토             |                                    |

## I. 머리말

1995년 11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기획했던 『안동의 옷』 특별전을 준비하던 중 국내에 보고된 바 없는 독특한 형태의 袍가 소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도포의 前身 내지는 초기 형태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가칭 ‘直領袍’라는 명칭으로 전시하였고 그 후 발간된 대학교박물관도록<sup>1)</sup>에도 동일 명칭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 후 관련 자료들을 조사·검토한 결과, 道袍로 판단되었기에 이에 대해 수정의 기회를 갖고자 하며 아울러 그간에 발굴된 새로운 유물 자료와 관련 보고서 및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도포 형태의 전래와 발전단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대표적인 袍類 중의 하나로서, 임난 후부터 입혀진 것으로 알려진 도포는 왕의 上衣로는 물론 왕세자 관례시의 初出服, 사대부의 외출복 및 의례복, 유생들의 常服으로 입혀

졌을 뿐만 아니라 착용이 금지되어 있었던 하류계층 사이에서도 착용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갑오개혁 당시 廣袖袍의 착용이 금지되면서 도포는 두루마기로 대체되기도 하였으나 光武 원년에 예복으로 제정됨에 따라 사대부의 의례복으로 자리를 굳혔다. 지금까지도 전통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유가적 행사의 예복으로 착용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도포의 형태에 대해서는 두루마기와 유사하지만, 그 품이 크고 길며, 넓은 누리소매에, 展衫이라는 뒷자락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뒷자락 중 겹으로 드러나는 자락을 전삼이라고 하고 전삼 아래의 안자락은 대체로 뒷중심이 터져 있다. 따라서 뒷자락 전삼은 안자락의 터진 부분을 가려줌으로써 말을 타고 앉았을 때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 줄뿐만 아니라 이를 들고 앉을 수 있어서 뒤가 구겨지는 것은 방지하는 구실을

\* E-mail : lej@anu.andong.ac.kr

1) 安東大學校博物館 편, 『安東地域傳統服飾』, 安東大學校博物館圖錄Ⅱ, 1996, pp.5~7

한다<sup>2)</sup>고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도포에 대한 의문점들이 여전히 제기되는 바, 우리 고유의 옷이라는 통념과 더불어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고, 그 기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도포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전삼’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자료와 유물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포에 대한 의문점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도포 형태의 발전 양상을 武의 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유형을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시대 복식 변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도포의 전래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도포에 대한 最古의 기록으로 선조 40년(1607년)에 前承文院의 正字였던 李弘望이 ‘草綠袂道袍’를 착용했다고 하여 파적이 거론되는 『宣祖實錄』의 기록을 제시해 왔다.<sup>3)</sup> 그와 아울러 도포 제도가 임난 후에 시작되었다고 언급한 『孝宗實錄』<sup>4)</sup>의 기록과 직령에서 도포가 발전되었다고 한 韓元震의 『南塘草稿』와 같은 기록 등에 근거하여 도포는 임난 후 직령에

서 생성·발전된 것이라고 하는 자생설의 주장이 큰 이견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sup>5)</sup>

그러면서도 도포의 기원설로는 直領 기원설, 大裘기원설, 佛·道服 기원설이 제시되는 가운데 자생설과는 달리 전래설<sup>6)</sup>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우선 직령 기원설은 한원진(1682~1751)의 『남당초고』에서 비롯되었다. 그 원문을 인용한 김동욱의 논문<sup>7)</sup>에 의하면 ‘愚謂士子之出入上服不可以爲官者所服直領公服故 就直領稍變其制爲道袍也 道袍之後面一如直領 更無可考 其後面爲直領者 直領之二葉衫於道袍 展附於衣裏汗版左右者然也 此以道袍後衣表裡之制 特著以示之也’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즉 선비의 출입 상복으로 위관자가 입은 직령공복을 착용할 수 없으므로 직령 제도를 조금 바꾼 것이 도포이며 그 후면은 직령의 二葉衫<sup>8)</sup>을 도포 안쪽에 달린 汗版에 좌우로 펼쳐 붙였다고 하였다. 한말의 유학자 安燁(1838~1912) 역시 그의 저서 『述古常制』에서 도포가 직령 제도에서 나왔다<sup>9)</sup>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大裘기원설을 주장한 이익(1681~1763)<sup>10)</sup>은 ‘字書’의 ‘袍란 表衣의 총칭이다’라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도포를 裘나 直身, 馮翼,<sup>11)</sup> 直襟 등의 걸옷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열거된 각각의 포는 그 형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의 유사성을 찾자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익이 주장하는 바는 형태가 같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걸

2) 이명희, ‘도포(道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1994, p.28 참조

3) 金東旭, ‘韓國服飾史辨證(16)’, 國立中央博物館 편, 『박물관신문』, 1983년 6월(제142호)

4) 『孝宗實錄』 卷十八 八年 正月 癸丑

5)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78~79, 그 외에 도 김동욱, 유희경, 이명희 등의 연구에서도 자생설을 암시한 바 있다.

6) 任榮子, 『韓國 宗教服飾: 佛敎와 道敎服飾을 중심으로』,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0, p.19

7) 金東旭, ‘壬亂 前後期の 出土服飾’, 忠北大學校 博物館 調査報告書 第8篇, 『壬亂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 1983, p.68

8) 二葉衫이란 앞길 옆선에 달린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의 두 조각으로 구성된 무릎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9) 安燁, 『述古常制』 章服 第七一, 서울: 成均館 영인본, 1975, pp.1149~1150. ‘...世俗所謂道袍者實直領之制...道袍用十四幅裘直領裘十六幅...’

10) 李漢, 『星湖僿說』 卷五 萬物門 道袍

11) 풍익이란 곧 중국 발음으로 봉액과 같아서 만들어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說略』 卷二十一 服飾, ‘...遂掖與馮翼音相近’

에 입는 옷, 즉 表衣로서의 역할 내지는 기능이 동일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기원설로는 僧服·道服 起源說이 있다. 李圭景(1788~?)은 『五洲衍文長箋散稿』<sup>12)</sup>에서 “도포는 ‘포’자 위에 ‘도’자를 붙여 명명한 것이다. 도교와 불교에서 나온 뜻으로 지금의 도포, 곧 道服이다.”라고 하여 도포가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任榮子는 “유·불·도 삼교가 혼일하는 양상 때문에 복식 자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지만, 도포가 ‘袍’에 ‘道’자가 붙여진 것은 道·佛의 종교적인 사상과 정신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세 가지의 기원설은 각기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논의의 차원이 다를 뿐, 모두 도포의 생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즉 대구 기원설은 기능면에서, 불·도복 기원설은 사상적인 면에서, 직령 기원설은 형태적 차원에서 도포를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직령 기원설은 대체로 자생설로 연결되어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구 기원설이나 불·도복 기원설은 중국에서의 전래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洪大容(1731~1783)<sup>13)</sup>은 일찌기 도포가 중국 명의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고 임영자는 중국 불·도교의 直身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중국 도포의 전래

설<sup>14)</sup>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물 중 ‘도포형 직령<sup>15)</sup>’라고 명명되어 발표된 바 있는 고려말의 백제포를 도포 유물 중 초기의 것으로 본다면, 당시의 명칭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반도 내에서 도포형 복식의 실존 연대는 상당히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대의〈玩雙陸圖〉에 나타난 관리의 모습<sup>16)</sup>에서 도포의 외형과 거의 유사한 포에 흉배 장식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원대의 관리들이 도포형의 옷을 입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고려말에 고려인들에게 입혀졌을 가능성이 크고 해인사의 도포형 직령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조선 초기의 유물이나 문헌자료 중에는 도포에 대한 자료가 드물다. 해인사의 도포형 직령을 제외하고는 고려시대의 도포 역시 자료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해인사의 도포형 직령이나 고려 후기의 회화 자료, 명대의 기록, 조선조의 기록과 유물 등을 중심으로 도포의 역사를 살펴볼 때, 다소의 유추가 불가피하다.

명대의 환관 呂愷가 저술한 『明宮史』<sup>17)</sup>에 의하면 內臣服 중에는 拽撒, 圓領襪襪, 直身, 道袍, 縵衣, 大褶, 順褶 등이 있다고 한다. 그 중 도포와 제도가 유사하다고 언급된 직신은 단지 襪가 바깥쪽으로 달려 있으며 도포와 마찬가지로 작음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補를 붙인 것이다. 또한 도포에도 등급에 따른 보를 부착한다<sup>18)</sup>고 하였다. 원대

12) 李圭景, 『五洲衍文章箋散稿』卷四十五 道袍辨證說

13) 洪大容, 『국역 담헌서』, 제2권, 서울: 고전국역추진위원회, 1983, p.273 ‘...官者朝服及士子道袍大抵襲用明制耳...’ 이상은 1766년에 홍대용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청 관리와 대화한 내용의 일부이다.

14) 任榮子, 앞책, 1990, pp.193~198

15) 權瑛淑, ‘海印寺 金銅 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성보문화재연구원 편,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1997, pp.130~131

16)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商務印書館, 1992, p.444, 〈玩雙陸圖〉에 나타난 좌측 官僚(元 至順(1330~1332) 刻本《事林廣記》插圖 참조)

17) 呂愷, 『明宮史』卷三 內臣服 八 ○直身 ‘製與道袍相同 惟有襪在外 綴本等補 聖上有大紅直身袍 凡遇大事若過司房或乘輦私自下直房 始穿此 凡見尊長則不穿其色 止有天青黑綠女青 不敢做大紅者 或亦開擺 加縵衣 而束本等帶’ ○道袍 ‘如外廷道袍之製 惟加子領耳 間有綴補’

18) 呂愷, 『明宮史』卷三, ‘直身 製與道袍相同 惟有襪在外 綴本等補 聖上有大紅直身袍...道袍 如外廷道袍之製 惟加子領耳 間有綴補’

의 〈玩變陸圖〉에 나타난 관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明代의 문학자 王世貞(1526~1590)의 『觚不觚錄』에 의하면 당시에는 도포가 명대 사대부의 연거복으로 착용되었는데, 연회에 정자이나 도포가 간소하다고 하여 반드시 예살을 입었다고 하니<sup>19)</sup> 도포의 존재와 용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명대에는 직신 곧 직령과 더불어 도포가 착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흉배까지 달아서 내외 관원들의 관복으로 입혀지거나 사대부의 연거복으로도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흉배 제도를 제외한다면 중국의 직신과 도포의 관계가 우리의 직령과 도포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추정도 그리 어렵지 않다.

한편 조선시대의 문헌자료 중 홍의장군 郭再祐의 父 郭越(1518~1586)에 대하여 金世廉(1593~1646)이 찬한 〈贈禮曹判書郭越神道碑銘并序〉중에 도포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지금까지 보고된 국내의 도포 자료 중에는 가장 연대가 앞선 기록이 될 것이다.

곽씨는 현풍에서 나와 고려에 이름을 떨쳤다...(중략)...공의 휘는 율이고 자는 시정이다...(중략)...갑자년(1564)에 대동찰방이 되었고 1566년에 영천군수가 되었다...(중략)...민력 14년(1586) 8월 6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69세였다...(중략)...공이 대동찰방이 되었을 당시(명종 19·1564), 윤원형(?~1565)이 왕실의 가까운 친족으로 임금의 사랑이 대단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휘역처럼 여겼다. 장두를 데리고 도포를 입고 나막신을 끌고 계단을 오르자 공이 노하였고 이를 듣는 자들이 기뻐했다.<sup>20)</sup>

이 자료에 의하여 조선조 명종대에는 도포가 착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趙憲(1544~1592)의 『東還封事』<sup>21)</sup>에 도포에 대한 기록이 있다. 동일한 내용이 『宣祖修正實錄』을 비롯해서 이수광의 『芝峰類說』에도 남아 있는데, 이는 선조 7년(1574)에 조헌이 명나라에 절정사로 다녀온 후 선조에게 명의 본받을 만한 문물제도를 건의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내용 중에는 예살 등과 같은 벽적의를 본받을 만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중국 조정에서 착용하는 홍포나 청포의 주름이 단령과는 다르고 오히려 도포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도포의 존재는 물론, 도포에 주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조대의 영상이었던 吳允謙의 부친, 吳希文(1539~1613)이 남긴 『瑣尾錄』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록이 확인된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듬해, 즉 계사년(1593) 5월, 왜병을 무찌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가는 중국 隊長이 흉배를 단 藍色緋段道袍를 입었다<sup>22)</sup>고 묘사되어 있다. 이 자료는 도포에 補를 달았다고 한 『병궁사』의 기록과 일치하면서 동시에 연거복이나 문관복 외에 무관복으로도 입혀졌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 후 3년 뒤인 선조 29년(1596)에는 명의 正使가 부산 일본영을 탈출하여 도피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정사가 氈笠에 道袍를 입고 있었다는 기록<sup>23)</sup>이 있으며 선조 39년(1606)에는 명의 사신이 다례 후 연회석상에서 上衣를 벗고 方巾과 道袍 차림으로 즐겼다고 하는 기록<sup>24)</sup>도 『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 기록에서도 우리나라에 왔던 명나라의 문·

- 19) 王世貞, 『觚不觚錄』二十七 ‘...腰中間斷以一線道橫之則謂之襦子衣 無線導者則謂之道袍又曰直攝此三者燕居之所常用也...皆過簡’
- 20) 郭忘憂堂記念事業會 編, 『忘憂堂全書』, 1987, p.715 ‘惟郭氏出自女豐 顯於麗氏...(중략)...公諱越 字時靜...(중략)...甲子出補大同察訪 丙寅承永川郡守...(중략)...實萬曆十四年丙戌八月六日也 享年六十九...(중략)...公之爲大同察訪 尹元衡以肺膈挾 上寵張甚 人視如虺豨有蒼頭着道袍蹠屐陞階 公怒杖之 聞者以爲快...’
- 21) 趙憲, 『承峯先生東還封事』八~十, 『국역 연행록선집 II』, 1982, pp.24~29
- 22) 吳希文(李民樹 역), 『瑣尾錄』上, 海州吳氏楸灘公派宗中, 1990, p.117, 卷二 癸巳, 五月初八日 ‘...近兵千餘, 而大將則騎良馬, 着藍緋段道袍, 前後胸背, 又着皮冠...’
- 23) 『宣祖實錄』卷七十四 二十九年 四月 丙午, ‘...正使着氈笠與青布衣...(중략)...則乃正使也 着氈笠衣道袍...’
- 24) 『宣祖實錄』卷一百九十八 十八 三十九年 丙午 四月 癸丑, ‘...行茶禮後兩使即脫上衣, 以方巾道袍就坐...’

무관들이 도포를 착용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해인 선조 40년(1607)에 비로소 이홍망의 초록 겹도포에 대한 기록<sup>25)</sup>이 확인된다.

이상으로 도포에 관한 임난 전후 시기의 명대와 조선시대의 문헌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중국 도포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록이나 유물 자료, 연구성과가 부족한 시점에서 당시 중국 도포의 형태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제시된 도포 관련 기록들의 시기적 연결성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도포와 우리의 도포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포는 이미 고려말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착용되었을 것이며 조선 초까지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가 점차 조선과 중국을 오갔던 사신이나 관련 인물들에 의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고 더욱이 임진왜란 중 조선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통해 士庶人까지 중국문물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면서 도포가 사대부 사이에 크게 확산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국화되어 갔으며 국말이나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현재의 모습으로까지 발전되었다고 생각된다.

### Ⅲ. 도포 형태의 발전 양상에 관한 실증적 분석

#### 1. 직령과 도포의 관계

도포의 형태는 동시대의 다른 포류들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도 도포의 형태 발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직령이라고 생각된다. 도포의 생성시기가 한 원진이 『남당초고』에서 지적했던 임난 후는 아닐지라도, 도포가 직령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하는

그의 논지는 상당히 설득력있다.

‘직령’이라는 어휘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글자의 뜻 그대로, 곧은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경우는 곧은 것을 지닌 포류의 총칭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관복형’과 ‘장의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는 관복형의 옷만을 지칭하는 경우이다. 즉 다른 연구<sup>26)</sup>에서도 일찍이 지적되었듯이 단령과 깃의 형태만 다를 뿐 다른 부위는 거의 동일한, 하나의 독립된 복식을 지칭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의 직령이라 함은 단령에 대응되는 곧은 깃의 독립된 복식을 지칭한다. 본 연구자는 직령이라는 명칭을 단령에 대응되는 관복형의 옷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직령은 임난 전의 포제 중 사대부에게는 연거 및 의출용 上服으로, 하류층에게는 관복으로 착용되었던 대표적인 복식이다. 고려 辛禡 13년(1387), 명제에 의해 관복을 개정할 때 직령이 하류계층의 관복으로 규정되었음<sup>27)</sup>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이나 회화 자료 등에서 당시 사대부들이 연거시나 출입시의 上服으로 직령을 착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도 사대부들은 직령을 上服으로 착용하였으며 하급관리는 여전히 관복으로 착용하였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직령 유물이 남아있지 않는 현재로서는 그 당시의 직령 형태를 상세히 논하기 어렵다. 단지 원대의 풍속화와 고려시대의 인물화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원대의 풍속화에서 보이는 직령(그림 1)에서는 두 종류의 무가 파악된다. 모두 밖으로 펼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는 앞뒷길 무의 위 부분을 꿰맨 형(좌측 인물)이고 다른 하나는 앞뒷길 무의 위 부분이 토인 형(우측 인물)인데, 토인 형이 조선 전기의 직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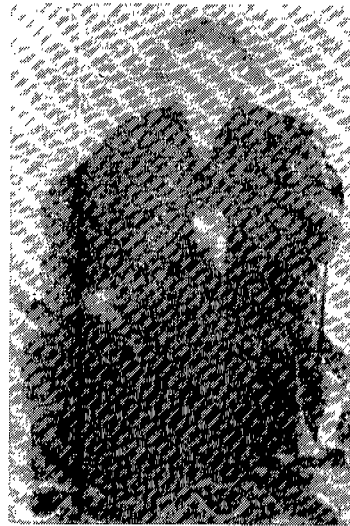
25) 『宣祖實錄』卷二百一十四年 四月 癸巳, ‘...李弘望穿着草織袂道袍...’

26) 金美子, ‘衣領에 관한 研究’, 『服飾』第5號, 1981, p.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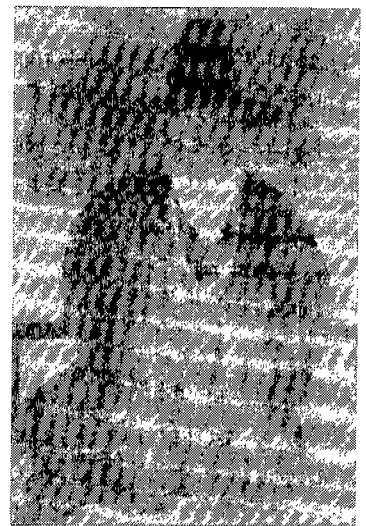
27) 『高麗史』卷七十二 十三



〈그림 1〉 원대의 직령(출처 : Chu Yü, "Street Scenes in Peace Time", B. Smith & W. Weng, CHINA : A History in Art, 1972, p.207)



〈그림 2〉 李兆年像(1269~1343)  
(출처 : 『人物畫』, 中央日報社, 1993, 도 100)



〈그림 3〉 金璉像(1500~1582)  
(출처 : 『人物畫』, 中央日報社, 1993, 도 106)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이다. 원대의 직령 무는 밖으로 뻗쳐 나왔지만 고려 말기의 名臣인 李兆年(1269~1343)(그림 2)의 초상화에서는 무 형태가 밖으로 뻗쳐 나온 형이 아니라 해인사 도포형 직령이나 담호처럼 오히려 옆선 안으로 접혀 들어간 다중 주름의 무가 확인된다. 직령의 무형태가 단령의 무와 동일한 과정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때, 단령을 입고 있는 명 태조(1368~1398)와 成祖(1402~1424), 宣宗(1425~1435)의 초상화에서도 옆선 안으로 접혀 들어간 다중 주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명 憲宗(1464~1487)의 초상화<sup>29)</sup>에서는 단령의 옆선 밖으로 뻗쳐 나온 무가 확인된다. 즉 원대의 밖으로 돌출되어 나왔던 무가 다중 주름으로 접혀져 겨드랑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대소 주름으로 구성되어, 작은 주름은 겨드랑이 안쪽에 남고 큰 주름은 밖으로 뻗쳐 나오는 형으로 변화, 전개된 것이 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후후의 상세한 논의가 요구되지

만, 명과 조선조 초·중기의 회화, 유물 등의 자료를 통해 볼 때, 다중 주름을 잡아 옆트임 안으로 넣었던 무 형태에서 대소 주름을 잡아 밖으로 뻗친 무유형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대략 15세기 중엽 이후가 아닌가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문수사 담호나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의 담호 유물에서는 사다리꼴의 무가 달려 옆선 안에서 다중주름으로 접혀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담호의 무는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직령이나 단령의 영향으로 직사각형 무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의 직령이나 단령, 담호의 무는 임난 전까지 대체로 직사각형의 무로 동일한 변천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발굴된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 李季胤(1431~1489)의 겹 직령에 달린 무는 직사각형 옷감 한 쪽으로 대소 두 개의 주름을 잡았다. 겨드랑이 안쪽으로 작은 주름을 접어 넣고 나머지 부분을 반으로 접어 큰 주

28) 國立故宮博物院 編, 『故宮圖像選萃』, 臺北 : 國立故宮博物院, 1973, 圖 40

29)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臺北 : 丹青, 1986, p.417(男圖一)

름을 만든 후 옆선 밖으로 나오게 처리하였다.<sup>30)</sup> 이러한 형태는 임난 전의 직령이나 단령, 답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무의 양식이다. 경북 안동의 의성 김씨 종가택 영당에 보관되어 있는 金璣(1500~1582)(그림 3)의 영정(1572년 作)에서도 그와 유사한 무의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순천 김씨(1530~임란 이전 추정)의 직령 중에는 3중 주름으로 처리된 것도 있다<sup>31)</sup>고 한다. 이렇듯 임난 전의 단령과 직령, 답호에는 여러 유형의 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동시대에 혼재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도포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무 형식을 지니면서 동일한 단계로 발전해 간 직령, 단령, 답호 중에서 역시 형태 면에서 가장 유사한 직령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도포는 단령과 달리 곧은 것의 옷일 뿐 아니라 답호와와는 달리 긴 소매의 옷이기 때문이다.

직령에서 도포로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고려말 ‘도포형 직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령의 앞뒷길 옆선에 직사각형의 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길의 무를 뒷길에 연결시키지 않고 앞길의 무에 연결시킨다. 거기에 다시 별도의 한 폭을 더 붙인다. 그리고 뒷길에는 사각형 무 대신 삼각형 무를 붙인다. 앞길에만 무가 총 세 폭이 연결되는 셈이다. 앞길에 붙인 무 세 폭 중 앞길에 직접 연결된 한 폭은 W자형의 주름을 잡아 앞길 겨드랑이 안쪽으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붙인 한 폭 역시 W자형 주름을 잡아 뒷길 겨드랑이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남은 한 폭은 뒷자락 안으로 넣은 후 뒷자락에 직접 꿰매어 고정시킨다. 결과적으로 직령의 무에 한 폭을 더 연결시키고 뒷길에 삼각무를 달면 도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좌우의 앞길에 붙여졌던 무가 몸을 감싸듯 뒷길 안으로 들어가 중심에서 만나면서 뒷자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트임이 생긴다. 이처럼 도포 뒷길 안자락의 트임은 편의를 주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앞길의 좌우 무가 각각 뒷자락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정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생성된 입을 알 수 있다.

## 2. 도포의 부분 명칭에 대한 검토

도포 형태의 통시적인 발전양상은 깃, 싹, 소매, 뒷자락 등 여러 부분의 세부형태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미흡하게 다루어져 왔던 뒷자락 안쪽에 달린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본 연구자가 도포의 ‘무’ 또는 ‘뒷길의 안자락’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직령에 달렸던 ‘무’의 변형으로, 도포의 형태적 발전 양상의 단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겹의 뒷자락에 있다. 도포의 뒷자락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展衫’으로 지칭<sup>32)</sup>된 이후, 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 별다른 이의없이 그대로 답습되어 왔다. 그러나 조근희<sup>33)</sup>는 뒷자락이 전삼으로 지칭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제시된 ‘垂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폭 안쪽의 한판에 연결된 부분을 ‘전삼’으로 지칭함으로써, 뒷자락을 ‘전삼’으로 보는 이론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경우<sup>34)</sup>도 있다. 이는 타당성있는 지적으로, 조근희가 제시한 전삼의 수정 견해와 동일 연장선상에

30) 朴聖寅, ‘廣州郡 突馬面 朽栗里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 『韓國服飾』 第11號, 1993, p.81

31) 金東旭, 앞글, 『壬亂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 p.47. 이 당시 김동욱은 ‘옆주름포’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나 이제는 ‘직령’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金東旭, ‘우리 服飾에 있어서의 使服 袍制의 變遷에 대하여’, 『東方學報』 第7輯,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63, p.60

33) 趙權姬, ‘道袍에 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6, p.53

34) 柳喜卿·金美子·姜淳弟, ‘發掘衣’,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查報告書』, 溫陽: 溫陽民俗博物館, 1989, p.190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자 역시 뒷자락을 전삼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문헌에 언급된 명칭들을 살펴보고 적절한 명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현재 안동지역에서는 도포의 뒷자락을 ‘매미차락’ 또는 ‘매미자락’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리어질 수도 있다. 또한 문헌에서도 각기 다르게 표기되기도 한다. 『晝永編』<sup>35)</sup>에서는 뒷자락을 ‘垂裾’라고 표기하고 있고 『오주연문장전산고』와 『남당초고』에서는 ‘垂幅’, 『太學志』<sup>36)</sup>에는 ‘後垂’, 그리고 『규합총서』에서는 ‘뒷자락’으로 지칭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전삼으로 불려졌던 뒷자락은 ‘수거’, ‘수폭’, ‘후수’ 그리고 ‘뒷자락’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수’라고 한다면 章服의 부속품인 後綬와 혼동될 염려가 있으니 ‘수거’나 ‘수폭’ 또는 ‘뒷자락’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규합총서』에 사용한 ‘뒷자락’ 명칭을 주로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뒷길’이라는 명칭도 병용하고자 한다.

한편 논의되어야 할 또 다른 명칭은 뒷자락의 안쪽에 달린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는 곧 뒷자락 안으로 꺾여 들어간 ‘앞길의 무’로서, 강릉에서는 이를 ‘불림’<sup>37)</sup>이라고 한다. 또한 한 보고서에서는 이를 ‘전삼’으로 지칭했음도 앞서 언급했다. ‘전삼’이라는 용어는 『남당초고』의 도포 안자락 그림상에 한판 좌측에 ‘附展衫’이라고 기록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측에는 좌측의 기록과 대칭인 ‘衫展附’이라는 기록이 있다.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소 달라진다. 『남당초고』의 본문에도 ‘전삼’이라는 용어는 없

다. 오히려 ‘展附’라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부전삼’ 보다는 오히려 ‘삼전부’로 해석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즉 ‘전삼을 단다’는 의미가 아니라 ‘衫을 펼쳐 단다’는 뜻이 된다. 이 때의 ‘삼’이란 물론 앞자락 또는 ‘앞길에 달린 무 자락’<sup>38)</sup>을 지칭하는 것이 된다. 본문 중 ‘이엽삼’의 略語일 것이다. 그러나 ‘삼’이라는 명칭은 의복의 명칭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전삼’을 ‘펼친 삼’으로 해석하여 앞자락에서 뒷자락 안쪽으로 꺾여 들어온 앞길의 무를 지칭하는 경우, 의미상 무리는 없으나 원문에 없는 新造語이기 때문에 사용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규합총서』에는 한판에 달린 부분을 ‘무’라고 하였다.<sup>39)</sup> 중국에서는 직령에 붙은 무를 ‘襠’<sup>40)</sup>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해 온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두 조각으로 구성된 뒷길 안자락에 대해서는 『남당초고』의 ‘이엽삼’이나 『규합총서』에서 사용된 ‘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뒷길 안쪽에 있으니 ‘뒷길의 안자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도포 형태의 발전 단계에 대한 분석

도포 형태의 발전 과정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도포의 주요 유물자료로는 우선 해인사 비로자나 불복장의 도포형 직령(1326~1384년 추정)과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俞淪(1559~1625)의 도포, 중요민속자료 제40호인 洪克家(?~1670)의 도포가 있으며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傳朴宗군 도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7세기 경의 도포, 파계사에 소

35) 鄭東愈(南晚星 역), 『晝永編』, 서울: 乙酉文化社, 1974(1806), ‘我東衣服之制...(중략)... 後有垂裾...’

36) 梁大潤 編著, 『新編 太學志』, 서울: 中央論評新聞社, 1960, pp.89~95, ‘...生員進士各畿人後綬青衫袍...’

37)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衣生活篇)』, 1986, p.124

38) 金東旭, 앞글, 『王亂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 忠北大學校博物館 調查報告書 8冊, 1983, p.45

39) 憑虛閣李氏(鄭良施 譯註), 『閩閩叢書』, 서울: 寶晉齋, 1992, p.130 ‘...뒤자락 도련을 귀를 만히 거드면 무가 싸지니...’

40) 王宇清 勸訂, 『中華服飾圖錄』, 臺北: 世界地理, 1984, p.261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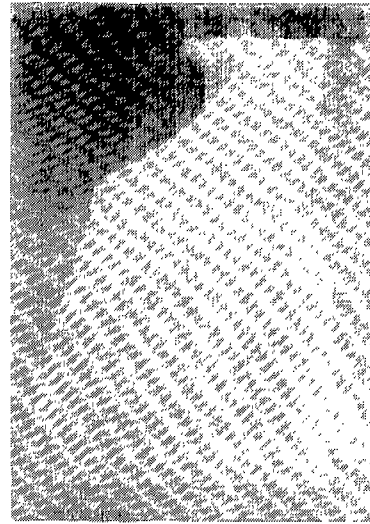


장되어 있는 英祖의 도포[靑紗上衣](1740년), 그 외에 온양민속박물관과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도포가 있다. 또 지금까지도 착용되고 있는 각 지역의 도포 유물들도 포함된다.

### 1) 해인사 '도포형 직령'

1997년 4월에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물이 매스컴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 비로자나불은 대체로 고려말 화엄종세가 빛을 발하던 1326년에서 1384년(우왕 10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복장물 중 도포의 원형 또는 초기 형태로 추정되는 '도포형 직령'(그림 4)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도 발표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추후 당시의 정확한 명칭에 대한 규명 작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명칭 문제는 논외로 하고, 형태의 특징상 도포의 초기 형태일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대에도 관료들이 이 옷으로 추정되는 복장에 흉배를 달아 입었음을 확인했다. 이 복장물에 대해 조사 보고한 권영숙은 고려 후기 회화자료에서 비교적 신분이 높은 자들이 크고 여유있는 도포형 직령을 입은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 유물은 옷의 크기로 보아 함께 복장되어 있던 답호의 주인, 즉 李承密의 것이 아닐까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승밀이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인물로서, 낮은 관직에 있었던 크게 현달하지 못한 관인<sup>41)</sup>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흉배를 달아 관료의 복장으로도 착용한 중국과는 달리 고려조에서는 귀족이나 일반 관인들의 일상적인 上服으로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유물의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그림 4〉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 도포형 직령  
(권영숙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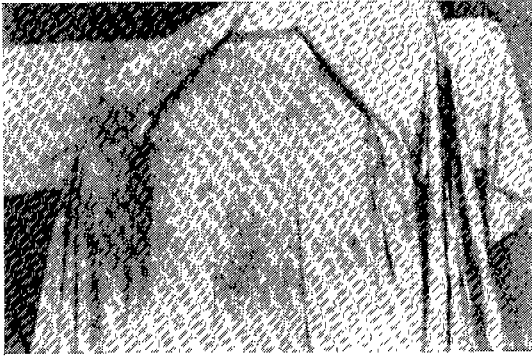
소매와 깃은 제거되고 왼쪽 길만 남아 있는데 밑호 외 외형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답호의 무가 문수사의 답호와 마찬가지로 사다리꼴인 반면 이것은 직사각형이므로 답호에 비해 옆주름 분이 훨씬 많다. 앞무와 뒷무를 이어 붙여 옆주름을 잡고 道袍처럼 뒷길 안자락을 한 폭 더 붙여서 뒷길 걸자락 안쪽에 대고 끈게 감쳐 고정하였다...(중략)... 밑호와 같은 옆트임 양식이 아니고 道袍처럼 뒷길 안·걸자락을 각각 분리한 구성법이며 뒷길 안자락 쪽에 트임을 준 뒤트임 양식이다. 즉 앞·뒤 무 두 장을 서로 연결한 후 뒷길 안자락을 한 폭 더 이어 붙이고 무나비만큼 앞·뒤에 7~8cm 나비의 주름을 각각 두 개씩 잡아 옆주름처리하고 나머지 안자락은 도포처럼 뒷길 걸자락 안쪽에 대고 끈게 감쳐 고정하였다. 각 주름의 끝은 삼각으로 접어 날이 시집을 정리한 뒤 앞·뒤 각 두 개의 주름을 한 줄로 하여 감쳐 고정한 후 앞·뒷길에 펼쳐대고 몸판에 걸쳐 고정시켰다....<sup>42)</sup>

### 2) 김약 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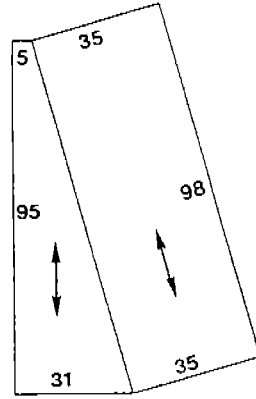
1995년 11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直領袍'로 명명되었던 無緣故者의 이 부명 겹포에 대해서 『박물관도록』에서는 '양속

41) 許興植, '14세기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과 燒廢戒牒의 奉安背景', 정보문화재단연구원 편, 앞책, 1997, p.89

42) 權瑛淑, 앞글, 1997, p.149



〈그림 5〉 김약 도포의 앞자락 펼친 모습  
(출처 : 『安東地域傳統服飾』, 1996, p.6)



〈그림 6〉 김약 도포의 무 실측도

무의 주름을 펴고 한편을 달아 앞길로 넘겨 고정시키면 도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sup>43)</sup> 도록 간행 후, 의성 김씨 분증의 도움으로 이 옷이 1987년 3월에 임하댐 건설로 묘를 이장하던 중 발굴된 김진(그림 3)의 손자인 김약(1559~1625)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김약이 임난 당시 의병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이 옷을 戒服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었지만 이 옷은 도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를 직령포로 명명했던 이유는 앞서 1995년 5월에 전시회를 가졌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의 포를 '직령포'라고 명명했었기 때문인데, 본 논문을 통해 이대 박물관 소장의 직령포와 더불어 이 포를 도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 도포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겹주름의 무가 달려 있다. 앞길에 달려 뒷길 안쪽으로 넘어간 무는 후술할 전 박장군 도포와 마찬가지로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의 두 조각이 연결되어 있다(그림 6). 두 폭의 옷감이 그대로 달려 주름으로 처리되었던 고려 말기의 해인사 도포형 직령과는 다른 모습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답호의 무는 고려후기에는 사다리꼴이었으나 조선 전기에는 직사각형

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도포는 그와 반대로 고려 말의 직사각형에서 조선조 중기에 사다리꼴의 무로 변화되는 것이다. 김약의 도포에서는 앞길에 연결된 무 쪽으로 W형의 주름으로 접혀져 앞길에 고정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뒷자락 안쪽에 직접 고정되었다. 따라서 해인사 유물에서는 앞·뒷길에 각각 W형 주름을 잡아 고정시켰던 것이 여기에서는 뒷길의 주름이 없어지고 앞길 주름만 남아 전체적으로 무의 크기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앞·뒤 무와 뒷길 안자락이 모두 옷감 세 폭으로 이루어졌던 해인사 유물이 온전한 한 폭과 한 폭을 거의 대각선으로 나눈 사다리꼴 조각을 연결한 형태로 변화됨으로써 면적상 정확하게 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 도포의 양 겨드랑이에 잡힌 5cm폭의 W형 주름 부분은 약 1.5~2cm 간격을 두고 1~1.5cm(6~9땀) 폭의 2條 상침으로 앞길에 고정되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뒷길 안쪽으로 넣어 뒷길에 각각 9조의 상침으로 고정되었는데 뒷자락에 고정된 좌우의 무는 22cm 정도 벌어져서 달렸다. 그리고 겨드랑이에는 동시대의 직령과 답호 등에서 확인되는 小袂<sup>44)</sup>형 덧대기를 붙여 무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하였다.

43) 安東大學校博物館 편, 앞책, 1996, p.5

44) '소요'란 커다란 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앞·뒤길 겨드랑이에 꿰맨  $\Sigma$ 형의 조각을 말한다. 江永, 『鄉黨圖考』第一卷(圖譜)二十一, 深衣裳裁布圖, 乾隆五十二(17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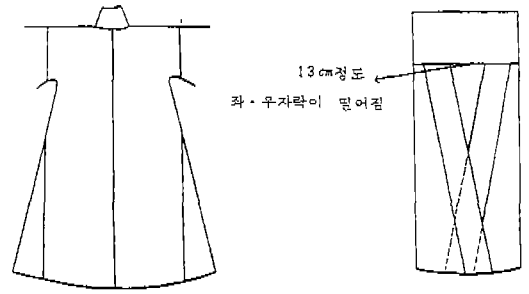
한편 김약 도포의 걸쇠는 큰 걸쇠와 작은 걸쇠의 두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은 걸쇠는 전 박장군의 것보다 훨씬 큰 삼각형이다. 뒷길 안자락의 벌어짐 역시 전 박장군의 것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넓게 벌어져 있다. 또 뒷자락 양쪽에는 겨드랑이부터 시작된 삼각형의 결대기가 달려 있는데, 이것 역시 전 박장군의 것에 비해 훨씬 커서 뒷길 안자락의 벌어짐을 여유있게 덮어준다.

즉 김약의 도포는 겨드랑이에 주름이 있는 무가 달려 있으며 두 조각으로 구성된 걸쇠가 달려있다. 뒷길 안자락이 뒷중심에서 넓게 떨어져 달려 있는 대신 뒷길 좌우 양면에 달린 큰 삼각형 결대기가 안정적으로 안자락을 덮고 있기 때문에 김약의 도포는 이제까지 도포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전 박장군의 도포에 비해 古式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3) 전 박장군 도포

1980년 忠北 清源郡 文義面 後谷里의 박장군 묘라고 전해 내려오는 무연고의 분묘에서 무명 홀도포가 출토되었다. 당시 출토된 유물들의 특성에 의거하여 임난 전후의 묘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무명으로 만들어진 이 도포는 현존하는 最古의 것으로, 도포로서의 구성이 정확되지 않은, 형성단계의 것으로 보고<sup>45)</sup>된 바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김약의 것보다 후대의 양식이라고 판단되므로 전 박장군 분묘의 연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김약(1559~1625)의 분묘를 이장했던 의성 김씨 문중의 설명에 의하면 김약은 여자 바지와 비슷한 오른쪽 토임의 너른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천안 풍세면의 제주고씨(1630~40년대 추정) 분묘에서도 여성의 너



<그림 7> 전 박장군 도포의 뒷자락과 무의 모습  
(출처 : 趙槿姬, 1986, p.26)

른마지 형태의 남자 바지가 출토되었다.<sup>46)</sup> 영조대 沈鏞(1722~1784)의 『松泉筆談』에 의하면 남자의 바지는 임난 후 중국인들에 의해 전해진 것<sup>47)</sup>이라고 한다. 즉 현재의 바지 부리가 좁아진 남자 바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전박장군의 출토복식 중 바지가 현재의 남자 바지와 유사한 좁은 형태이며 그 외의 유물 형태에서도 17세기 중반 정도의 특징이 보인다.

중요민속자료지정 조사보고서 제83호에 제시된 전 박장군 도포의 실측도(그림 7)<sup>48)</sup>에 의하면, 앞자락의 걸쇠는 큰 걸쇠에 작은 삼각형 조각이 더 달려 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김약의 것에 비해 훨씬 작다. 뒷자락의 경우에는 두 쪽의 뒷자락 양쪽에 작은 삼각형의 결대기가 달려 있다. 삼각형 결대기 역시 김약의 것에 비해 다소 축소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좌우 앞길 옆선에 연결된 무는 옆선 쪽에 사다리꼴 조각이 붙고 다시 반 쪽의 직사각형이 붙었는데 김약의 도포에서는 한 쪽의 직사각형 무가 연결되었던 것이 겨드랑 부위의 주름이 없어지면서 한 쪽에서 반 쪽 정도로 줄은 듯 하다. 두 조각으로 구성된 좌우 무는

45) 충북대학교 박물관 편,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5, p.16  
 46) 고부자, ‘천안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에 대한 연구’, 『韓國服飾』 第15號, 檀國大學校附屬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97, pp.74~75  
 47) 沈鏞, 『松泉筆談』 貞 ‘...宜廟壬辰難後楊經理刑軍門諸公率兵東來閱歲留屯於是國人始倣華人之袴制男子着之謂之唐袴...’  
 48) 趙槿姬, 앞글, 1986, p.26 참조

13cm 정도 벌어져서 달렸다.

4) 홍극가 도포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홍극가 도포(중요민속자료 제40호)는 삼베 홑 도포로,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월곡면 절강동의 부림 홍씨 14대조 洪克家(1670년 졸)<sup>49)</sup>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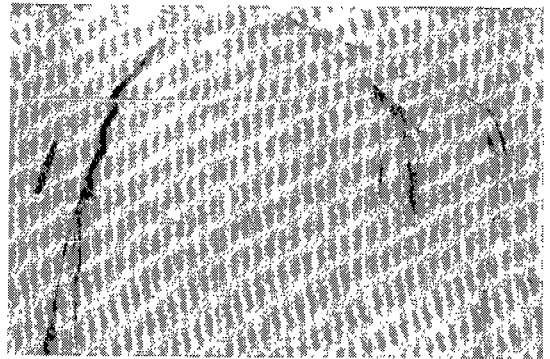
김약의 도포나 전박장군의 도포보다 후대의 것인 이 도포는 소매 형태를 제외한 쇠이나 뒷길, 무등의 구성에서 상당히 안정된 구조를 보여준다. 즉 김약이나 전 박장군의 도포에서 두 조각이었던 겹쇠이 한 조각으로 줄어든 반면, 앞길과 사다리꼴형 무 사이에 새로운 삼각형 무가 등장했다. 대신 뒷자락에 달려있던 삼각형의 겹대기는 제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앞길 겨드랑이에 삼각무가 새로이 첨가되고 앞길에서 넘어온 무가 뒤 중심에서 맞닿으면서(그림 8) 뒤가 가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넓은 뒷자락으로 덮을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생겨난 구성상의 변화로 추정된다. 뒷길의 아래 단은 양쪽 겨드랑이 너비보다 약간 넓어서 가장자리 세로선이 직선으로 처리된 조선조 후기의 것과는 달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홍극가 도포에서 보여진 새로운 변화, 즉 겹쇠이 한 조각으로 정리되면서 앞길 겨드랑이 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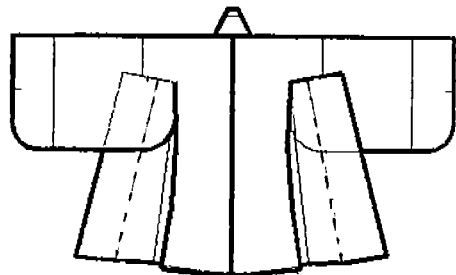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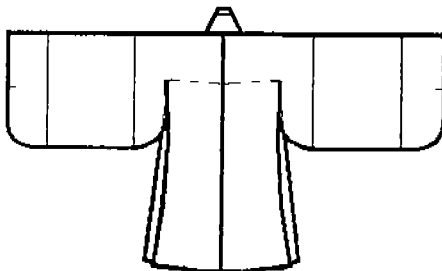
새롭게 첨가된 삼각형의 무, 뒷자락 안쪽의 좌우 안자락이 두 조각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뒷 중심에서 맞닿은 점, 뒷자락 양쪽의 삼각형 겹대기가 제거되고 두 쪽으로 정리되면서 이루어진 정제된 모습은 도포 형태의 완성으로까지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앞길과 사다리꼴 무 사이에 첨가된 삼각형의 무는 한국화된 도포 제도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17세기 도포

1995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했던 「服飾」 전시회에서 '직령포'로 명명되었던<sup>50)</sup> 17세



〈그림 8〉 홍극가 도포의 무 형태  
(출처 : 『安東地域傳統服飾』, 1996, p.2)



〈그림 9〉 도포의 무를 뒷자락 안으로 정리한 상태(좌)와 펼친 상태(우)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17세기 말 도포)

49) 홍극가의 12대손인 홍무열씨가 『중요민속자료 보고서』 이후 사용되어 오던 ‘홍극가’의 ‘加’字가 ‘家’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음에 따라 『박물관도록』에 수정·기록한 바 있다.

50)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편, 『服飾』,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特別展 圖錄(23), 1995, pp.22~23(圖 11)

기 경의 명주 겹 도포(그림 9)는 전시 및 도록에서 앞길에 연결된 무를 뒷길 길으로 마무리했었지만 조사 결과, 김약의 도포와 마찬가지로 고운 홈질로 뒷길 안쪽에 직접 고정시켰던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직령포의 명칭 역시 도포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연대 역시 형태상의 특징으로 보아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기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도포는 겹으로 제작되었다. 한판은 달리지 않았으나 홍극가 도포의 무와 마찬가지로 뒷자락 안으로 꺾여 들어간 앞길의 좌우 무가 뒷중심에서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 앞길과 뒷자락 안으로 들어간 사다리꼴 무 사이에는 역시 홍극가 도포에서 보이는 삼각형의 무가 삽입되어 있었으며 뒷자락에도 역시 좌우의 삼각형 결대기 없이 뒷길 두 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뒷자락 안으로 들어간 무 부분은 역시 다른 도포와 마찬가지로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의 두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 6) 파계사의 영조 도포

발원문에 ‘靑紗上衣’로 기록되어 있는 파계사 소장의 영조 도포(1740년)는 홀으로 곱게 바느질되어 있으며 다른 도포와는 달리 칼깃이 아닌 당코깃으로 제작되어 있다. 소매는 화장이 긴 두리소매이며 특히 앞길에서 뒷자락 안으로 넘어온 무는 뒷자락 안쪽에 곱게 감쳐서 고정시켜 다른 직물로 싸서 마무리하였다<sup>51)</sup>고 한다. 궁중유물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도포의 복원품을 살펴보면 좌우의 무가 뒷중심에서 4cm씩 좌우로 교차되어 총 8cm 겹쳐져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홀 도포에는 동부분에 한판이 달려 있는데 이 도포는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의 도포형 직령과 마찬가지로 홀임에도 불구하고 어깨바대만 있을 뿐 한판이 없다. 홀으로 제작하는 경우 무를 뒷자락

에 직접 고정시키면 옷감의 하중 때문에 뒷자락에 부리한 힘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어깨바대를 연장시킨 한판에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도포는 전통을 고수한 궁중의 보수적인 바느질 방법 때문인지, 아니면 11승 모시의 해인사 도포처럼 가벼운 紗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홀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바대만 있고 한판은 없어서 한판 달리기 이전의 古式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7) 안동김씨 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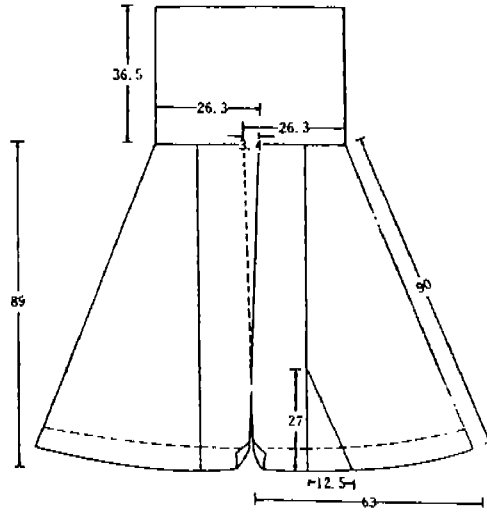
온양민속박물관 소장의 조선 말기 안동김씨 도포는 조선 후기 도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좌우 앞길 옆선쪽으로 삼각형 무가 각각 달려고 그 옆에 계속 연결된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으로 구성된 두 쪽의 무가 뒷길 안으로 들어가 한판과 연결되어 있다(그림 10). 그러나 전항에서 언급했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도포는 뒷자락 안으로 들어간 앞길의 무가 뒷중심선에서 완전히 맞닿은 것과는 달리, 3.4cm 정도 겹쳐져서 달려있다. 무가 겹쳐 달린 경우는 이 외에도 석주선 기념민속박물관 소장의 동래정씨 도포(17세기 후반)를 비롯하여 파계사 영조 도포 등 조선 후기의 도포에서 흔히 확인된다. 『규합총서』<sup>52)</sup>에서도 도포를 만들 때 곧은 부, 즉 직사각형 부가 약간 겹치도록 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를 겹쳐서 뒤가 덜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조선조 후기의 보편적인 도포 바느질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8) 개화기 이후의 改良道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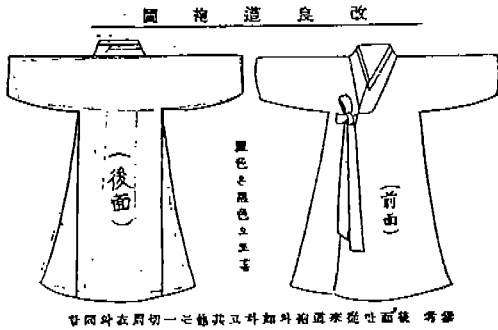
1935년에 제시된 『儀禮軌範』冠禮편에 ‘남자가 조선복을 입을 경우, 개량도포를 입는다’는 규정이 나오며 개량도포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그림

51)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편, 『韓國民俗大觀』 卷2, 1980, p.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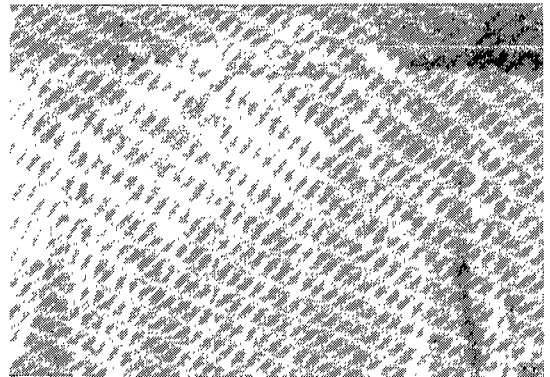
52) 惡虛閣李氏(鄭良婉 譯註), 앞책, p.130 ‘...대저 등바대가 단동 밋히 다아야 뒤모양이 맞고고, 치그어 오르면 맛낱치 못후고, 곳은 무를 깊히 어긋디 말고, 다만 념의고...’



〈그림 10〉 안동김씨 도포 무 부분 (은양민속박물관 편, 1989, p.190)



〈그림 11〉 개량도포  
(출처: 『朝鮮王朝 宮中冠婚祭禮』 1996, 六)



〈그림 12〉 근래 안동지역 도포의 내부

11). 국말의 도포 형태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이 개량도포의 뒷길은 종래의 도포와 같고 그 외는 周衣와 같다.<sup>53)</sup> 즉 소매는 좁고 뒷길의 안자락은 세 조각으로, 두루마기처럼 막고 그 안자락을 한판에 달았다. 종전에는 사다리꼴과 직사각형 두 쪽으로 구성된 무가 앞길 좌우로 달려있기 때문에 안자락 전체가 총 네 조각으로 구성되고 뒷중심에 트임이 있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세 조각으로 줄면서 트임이 없어진 것이다. 즉 어깨

에서 내려간 한판에 무를 그대로 달되, 본래의 좌우 사다리꼴 무 사이에 반 폭 정도로 달려 있던 두 조각의 직사각형 무를 옷감 한 폭으로 통합하여 연결시킴으로써 트임을 없앴다.

근래에 착용되는 도포의 무(그림 12)는 그보다 더욱 단순화되었다. 즉 뒤중양의 통합된 한 폭의 직사각형 무가 별개의 한판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한판까지도 중양의 직사각형 무에 붙임으로써 어깨부터 단까지 한 장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양쪽에

53) 李王職 編, 『朝鮮王朝 宮中冠婚祭禮』, 民俗苑, 1996(1935), 六

사다리꼴의 무가 하나씩 붙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는 『儀禮軌範』에 제시된 개량도포보다 바느질 상 더욱 간소화된 것이다.

따라서 개화기 도포는 외형적으로 조선 후기의 도포와 같아 보이지만 무와 관련된 내부 구조는 초기의 것에 비해 상당히 단순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뒷자락의 외형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는 경제적 상태나 외관상의 아름다움, 바느질 상의 편리성 또는 착용상의 안락감 등을 위해 변화·발전되어 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도포가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되어 온 과정을 볼 때, 근래의 민속조사보고서 등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뒷자락 내부의 트임 여부가 지역적인 차이를 뜻하기보다는 도포 형태의 발전 단계 중 어느 단계에 머문 것인가라는 발전 단계에 의한 차이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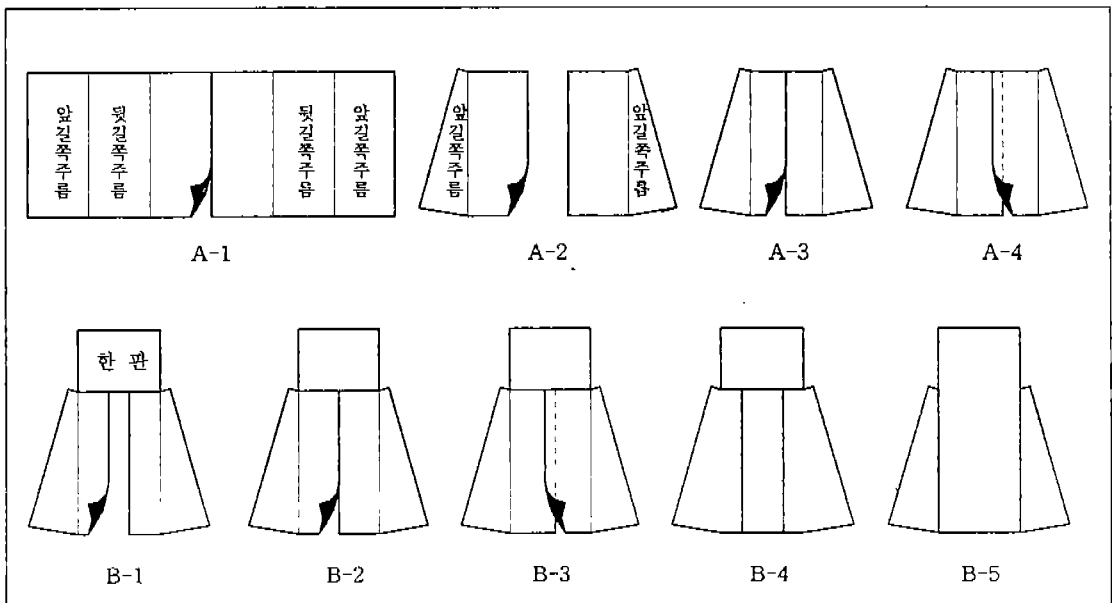
#### 4. 도포 뒷길 안자락의 유형 및 다른 부위와의 상관관계

도포 형태의 동시적 발전양상은 깃이나 어깨바대, 소매 등의 형태, 품의 치수, 뒷자락의 모양 등에 나타나는 구성 부분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겠지만 뒷자락 안쪽에 달린 무의 발전양상(그림 13)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도포의 무, 즉 앞길에서 넘어가 이루어진 뒷길 안자락의 구조, 좌우 무의 벌어짐, 트임의 유무, 한판의 유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양상 속에서 일련의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형태상의 특징 파악을 통해 제작 시기의 판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추후 새로운 형의 도포가 발굴되면 그 유형이 더 세분화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뒷길로 넘어온 상태에서의 안자락 유형은 우선 한판의 유무에 따라 A형과 B형, 두 종류로 대별될 수 있다.

디자인 형성 과정의 특성상, 한판이 있는 형보다는 없는 형이 먼저 생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A형이 B형보다 먼저 생성되었을 것으로



〈그림 13〉 도포 뒷자락 무의 유형 : A(4형), B(5형)

추정되며 소멸 시기 또한 A형이 B형보다 앞설 것으로 생각된다. 무 조각의 형태나 벌어진 정도에 따라 A형과 B형은 각각 네 종류, 다섯 종류로 분류되며, 특히 B형은 지금까지도 홀으로 제작된 도포에 남아있다. 유물 중에는 한판과 연결된 부위에 주름을 잡은 무도 있고 세부 조각이 더 연결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옷감의 폭이나 여유, 도포의 품 정도에 따라 첨가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다리꼴(어숫 무)과 직사각형(곰은 무) 두 조각으로 구성된 무의 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편의상 유형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도포 무의 첫 번째 유형인 <A-1>형은 직사각형 옷감 두 폭이 그대로 연결된 형으로 지금까지의 도포 유형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형이다. 즉 고려말 해인사 도포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앞길 옆선에 한 폭의 직사각형 무가 달렸는데 이것 역시 이중주름으로 처리되어 앞길 안쪽으로 정리되었다. 뒷길에 달린 두 폭의 직사각형 무 중 옆선에 직접 연결된 한 폭이 이중주름으로 접혀져 뒷길 안쪽으로 정리되었고 나머지 한 폭은 뒷길 안쪽에 직접 고정되었다. 한편 뒷자락 좌·우 길 가장자리에는 삼각형의 무가 달려 있다.

<A-2>형은 앞길에 이중주름이 달리고 좌우 무가 뒷중심에서 벌어져서 달린 형이다. 한판이 없기 때문에 역시 뒷자락의 안쪽에서 뒷자락에 직접 고정된다. 이는 김약의 겹 도포에서 볼 수 있다. 해인사 도포에서 볼 수 있는 앞길에 달린 직사각형 무는 제거되었고 뒷길의 두 폭 직사각형 무도 옆선 쪽 하나는 사다리꼴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겨드랑이 앞·뒤로 주름이 잡혀있던 것에서 간소화되어 뒷길 겨드랑이에 두었던 주름이 생략되고 앞길에만 주름을 남겨 두었다. 해인사 도포는 뒷중심에서 좌우의 무가 정확히 맞닿아 있는데 이 유형은 무가 좁아진 관계로 무의 뒷중심이 벌어져

있다. 임난 후 어려운 경제 상태 등으로 물자절약을 위한 노력의 흔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무를 덮고 있는 뒷자락에는 해인사 도포에서와 마찬가지로 뒷자락의 양끝의 결대기인 삼각무가 확인된다.

<A-3>형은 김약의 도포 무에서 앞길에 달렸던 주름이 퍼지면서 좌우의 무가 뒷중심에 맞닿은 형태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직령포’로 명명되었던 17세기 후반의 도포가 이에 해당한다. 앞, 뒤 길 자체에도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 대체로 앞서 두 쪽이었던 걸섶이 한 조각으로 줄면서 앞길과 기존의 무 사이에 삼각형 무가 새로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뒷길 안자락의 무가 맞게 되면서 뒷길 양쪽에 달렸던 삼각형 결대기가 없어짐에 따라 뒷모습이 날렵해짐을 알 수 있다.

<A-4>형은 파계사 소장의 영조 도포에서 확인된다. 즉 도포의 좌우 무가 뒷중심에서 겹쳐져 달린 형이다. 겹치는 분량은 옷감 폭이나 치수 상태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A형>의 도포는 고려 후기에 앞 뒤 길 겨드랑이에 겹주름이 달려 있고 뒷중심에서 좌우의 무가 맞닿았던 형태에서 조선시대로 들어서면서 무의 크기가 줄어든다. 겨드랑이에 주름이 앞길에만 있다가 완전히 없어지고 좌우의 무는 뒷중심에도 닿지 못한다. 그 후 중심에 닿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무는 겹치게 된 것이다.

<A형>의 도포에는 홀 도포와 겹 도포가 모두 있다. 특히 겹 도포에는 구성상 대체로 한판이 달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록상 丙拱이 있는 도포 즉 겹 도포는 正祖 24년(1800)<sup>54</sup>까지 보인다. 그 후의 기록이나 유물에서는 겹 도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판 없는 <A형>의 도포류는 한판 달린 <B형> 도포보다 일찍 생성된 반면에 일찍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판이 달린 <B형>은 주로 임난 후의 홀 도포에서 발견된다. 앞장에서도 설명했듯이 한판

54) 『正祖實錄』 卷五十四 二十四年 庚申 六月, 小斂, 大斂, 梓宮衣襯 중에 ‘藍貢緞道袍 二件 丙拱 粉紅紬’ 처럼 丙拱이 있는 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의 사용은 뒷자락과 안자락의 분리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뒷자락의 모양을 메끈하게 하기에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B-1>형은 한판에 뒷길 안자락의 무가 벌어져 달린 형으로 <B형>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한판 없는 <A형>에도 무에 주름없이 뒷중심에서 벌어진 유형이 있을 법한데 아직 발굴된 유물은 없다. 그러면서도 한판이 달렸고 무에 주름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A-2>형보다 늦게 생성된 형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유물이 김약의 도포와 홍극가의 도포 중간, 즉 17세기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 박장군의 도포이다. 또한 이 경우 앞길 겨드랑이 쪽에 삼각무가 아직 삽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신 뒷길 양편으로 소형의 삼각무가 달려서 안자락의 벌어진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다.

<B-2>형은 뒤 안자락의 무가 완전히 맞닿은 형으로, 1670년의 홍극가 도포에서 볼 수 있다. 한판이 있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A-3>형과 동일하다. 앞길과 뒷길 안자락 사이에 삼각무가 새로이 삽입되었고 대신 뒷자락 양편의 삼각형 결대기 무는 사라졌다. 앞길 옆선과 사다리꼴 무 사이에 새로이 삽입된 삼각무는 곧 한국화된 도포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며 현재의 도포 형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B-3>형은 한판에 뒤 안자락의 무가 약간 겹쳐져서 달린 것이 특징이다. 한판 없는 <A-4>형과 같은 유형이다. 겹쳐진 분량이 아주 적기는 하지만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의 17세기 중·후기의 동대정씨 도포<sup>55)</sup>가 있고 온양박물관 소장의 국말 안동김씨 도포가 있다. <B-2>형과 더불어 상당 기간 동안 공존했던 유형으로 추정된다. 19세기 초기의 문헌으로 추정되는 『규합총서』에 도포의 양쪽 무를 뒷자락의 안으로 넣어 바느질 할 때 너무 많이 겹치지 말고 단 만큼만 겹치라는 설명과

국말 안동김씨의 도포로 보아 무가 겹쳐진 양식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후기 도포의 일반적인 양식일 것이다.

<B-4>형은 1930년대 개화기의 개량도포에서 보이는 양식이다. 뒷중심에서 갈라졌던 무가 봉합되어 한판에 연결됨으로써 뒤트임이 사라졌다. 트임이 없는 단순한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무의 쪽 수도 과거의 네 쪽에서 세 쪽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다리꼴 무 옆에 달렸던 뒷중심 쪽의 좁은 직사각형 무 두 쪽이 한 쪽으로 연결됨으로써 쪽 수가 줄어든 것이다. 한편 안자락을 ‘불림’이라 불렀던 강릉에서는 특히 갈라진 무를 ‘쪽불림’, 봉합된 무를 ‘통불림’이라고 하였으며 5, 60년 전부터 도포 안자락을 통불림으로 했다<sup>56)</sup>고 하니 이는 개화기 개량도포의 출현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B-5>형에서는 한판 조차도 무에 직접 연결되어 더욱 단순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즈음 제작된 도포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이렇듯 도포 유물을 통해 무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고려시대의 도포형 직령은 앞길 좌우에 달렸던 세 폭의 커다란 무가 두 폭은 앞뒷길에 W자형 이중주름으로 각각 처리되고 한 폭은 뒷길 안쪽에서 고정되어 뒷중심에서 만난 형태였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언제부터인지 사다리꼴 무 하나에 한 쪽에서 반 폭 정도의 직사각형 무를 다는 형식으로 무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겨드랑 주름도 앞길에만 남게 되고 뒤로 넘어간 안자락 역시 뒷중심에서 벌어져서 달리게 되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름이 퍼지면서 뒷자락 안쪽으로 벌어졌던 무가 맞닿게 되고 또 다음 단계에서는 무가 겹치게 되었다. 그리고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겹쳐졌던 무는 트임을 없애고 막힌 형태로가

55) 高富子·朴聖寅, ‘驪州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 小考’, 檀國大學校附屬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刊, 『韓國服飾』 第8號, 1990, p.88. 三足元羅의 도포에는 1.6cm 정도가 겹쳐져 있다.

56)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앞책, 1986, p.124

지 발전되었고 근래에는 한판까지도 무에 연결시켜 더욱 단순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포 유물의 제작연대가 위에 제시한 도포 형태의 발전단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근래까지도 뒷길 안자락 트임에 손가락 세 개 정도의 간격을 둔다<sup>57</sup>고 하며,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말의 어린이용 도포에도 뒷길 안자락의 좌우 무가 10cm 정도 벌어지게 달린 것이 있다. 이처럼 각 유물들의 유형이 시기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인 시기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제작자의 취향이나 바느질 중에 발생하는 임시변통적 특성, 옷감의 너비나 여유 또는 부속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분묘 출토복식인 경우, 피장자의 사망시기와 출토된 도포의 제작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연대추정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도포의 생성을 중국 도포의 전래에 의한 것임을 문헌 자료를 통해 밝히고자 했으며 수용된 후의 발전과정을 뒷자락 안쪽에 달린 무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형태상의 발전 단계와 유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안동대학교 박물관도록 『安東地域傳統服飾』과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도록 『服飾』에 ‘직령포’로 지칭되었던 포의 명칭이 도포로 수정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고려말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물 중 도포형 직령으로 명명·발표된 옷을 현재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도포 유물로 파악하고 본 연구의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의 명칭은 불확실하지만 고려시대에 이미 도포형의 복식이 착용되었을 것으로 가정해 보았다.

도포에 대한 문헌 자료로, 추후 더 앞선 시대의 기록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종전까지 조선시대의 도포에 관한 最古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던 선조 40년(1607)의 것보다 40여 년 앞선 명종 19년(1564)에 도포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러 문헌 자료를 근거로 하여 도포가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설을 제시하였으며 형태는 직령 등의 포 형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음을 밝혔다. 도포의 무는 직령의 직사각형 무와 유사한 구조에서 발전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설명되어 왔던 것처럼 ‘갈라진 뒷자락’ 위에 새로운 뒷자락을 덧붙인 것이 아니라 뒷자락은 본래부터 뒷길 그대로 존재했던 것이고 오히려 ‘갈라진 뒷자락’이라고 했던 것은 앞길에 연결되어 있던 무가 뒷자락의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서 안자락을 이룬 것이므로 안자락의 뒷중심 트임은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삼’이라는 명칭은 지금까지 파악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뒷자락이 아니라 오히려 뒷자락 안쪽에 달려 있는 자락으로, 더 정확하게는 앞길에서 넘어온 무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뒷길 안자락은 ‘이엽삼’, ‘무’ 또는 ‘안자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엽삼으로 지칭되었듯이 35cm 전후의 좁은 옷감 폭을 사용할 경우엔 두 조각을 연결하여 하나의 무를 만들었다. 이러한 두 조각의 무는 조선 말기의 도포에까지 유지되는데, 옆선에 붙은 조각은 대체로 사다리꼴이고 뒷중심 쪽에 달린 조각은, 초기에는 옷감 한 폭, 후기에는 반 폭의 직사각형이 일반적이었다. 즉 어긋 무와 곧은 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삼으로 불리어 왔던 뒷자락은 ‘후수’, ‘수거’, ‘수폭’, ‘뒷자락’ 등의 명칭으로 불리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고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뒷자락’이나 ‘뒷길’이라는 명칭을 사용

57) 방현미, ‘도포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40

하였다.

유물 자료의 실증적인 분석결과, 도포는 한판의 유무에 의해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한판이 없는 것을 A형, 있는 것을 B형으로 구분하고 또 다시 무의 구조와 벌어짐의 정도에 기준하여 A형은 네 단계, B형은 다섯 단계로 제시하고 한판이 없는 형이 있는 형보다 먼저 발생해서 소멸도 먼저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도포의 무는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축소되어 갔는데, 임난 직후에는 극히 무의 크기가 줄었다가 점차 무가 겹치는 다소의 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말 간소화의 경향에 의해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트임 자체가 없어지는 간편화된 형태로 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예복으로 정착되면서 겹 도포보다는 홑 도포가 일반화되었다.

깃이나 어깨바대, 소매 형태 이외에도 무의 형태가 도포의 연대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됨을 알 수 있었고 무의 형태 변화에 따라 뒷자락의 형태 또한 바뀜으로서 한 부위의 변화가 다른 부위의 변화를 유도하는 유기적 관련성도 알 수 있었다. 복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되어 가는 일련의 모습을 통해 복식디자인 변천의 구성원리나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심리적 원리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유추되었던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Origin and Structural Development of *Do-po*

The origin and structural development of *Do-po* have been studied with a consideration of the back piece of *Do-po* in this paper. This study found that *Do-po* was originally imported from China. This paper reports that an earlier record on *Do-po* is found in an epitaph(1564) than the record found in *SünjoSilnok*(1607) which is conventionally known as the earliest record on *Do-po*.

The structure of *Do-po* has been widely known as an "attachment of *Jün-sam*" on slitted back piece of the outwear.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Do-po* has been formed by inserting the gusset of the front piece into the back piece of the outwear *Jik-nyung*. This change can be considered as the economical and practical needs to save the cloth or by the aethetical need of simpler clothing. This study also classifies the shape of gussets largely into nine classes according to the temporal development in the shape of gussets.